"도 탄소산업 관련 정책 · 예산 지원 촉구"

여야 의원들 주최 탄소산업 정책포럼 참석 김종훈 정무부지사 "인프라 구축에도 선진국과 비교시 여전히 부족"

여야 국회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소재 공급망 확보'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전북도에서는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를 주제로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탄소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럼을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안호영의원, 신영대 의원,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전라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경상북도 이달희 부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6명의 여야 의원들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성능 탄소소재 기술개발 등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소재 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한 R&D지원, 관련 인프라 확보,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산업 정책포럼. 〈사진=전북도청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다"며 "세계 우주 선진국은 탄소소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에서 "탄소소재 산업 발전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소재 그 자체가 고성장 산업일 뿐 아니라 수소차, 항공기 등 전후방 산업의 고강도 및 경량화를 구현하는 핵심소재"라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고품질 탄소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앞으로 PAV, 무인기 등 첨단 신성장 산업에서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소재개발-부품제조-제품화-신뢰성검증 등에 이르는 전주기적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탄소소재·부품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을 오늘의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과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6대 탄소소재 기술개발 및 장비 국산화 등 아직도 선진국(미, 일, 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의 탄소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고품질 소재 개발, 장비 국산화에 많은 정책적 지원과 국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영상산업 메카로 비상 노린다

전북도, 영화 · 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 전폭 지원
올해 상반기 영화 등 41편의 영화 · 영상물 유치

전북도가 전북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영화·영상 제작 기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도는 영상 제작 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영화기회개발, 장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제작 인력 인턴십, 전주 영화학교를 통한 멘토링 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촬영 유치를 지원하고있다.

올해 상반기에 장편영화 8편, 드라마 20편, 방송·CF 13편 등을 포함해 총 41편의 영화·영상물이 전북지역에서 촬영됐다.

특히,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전주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촬영됐으며, 전주시 교동에 위치한 '한벽굴'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관광지로 부강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전북지역에서 촬영하면 도내 소비액에 따라 제작비 지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제작사의 도내 장기 촬영유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도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작을 상시 모집 중이다.

신청자격은 독립 장편영화의 경우 제작규모(순제작비 기준) 3억 이상 전라북도에서 3회차 이상 촬영하는 작품, 상업 장편영화의 경우 제작규모 10억 이상 전라북도에서 5회차 이상 촬영하는 작품, TV드라마의 경우 제작규모 10억 이상 전라북도에서 3회차 이상 촬영하는 작품이다.

/김경수 기자

도내 학교, 코로나19 방역 강화 당부

수학여행 · 체험활동 등 소규모 분산 진행 권고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주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학교 방역 지침 준수와 예방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고 21일 전했다.

전주 A고등학교 수학여행은 학생 450명과 인솔교사 27명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21일)까지 총 159명(학생 144명, 교사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밝혀진 바로는 수학여행 출발 전날인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다수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이들만 제외하고 일정을 추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호남권역질병대응센터, 교육청, 전주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학교 수학여행·체험활동 시 학년별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소규모 분산 추진, 조기방학 실시 등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 전교생은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를 권고했으며, 잠복기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농특산물, 국내 최대 편의점 CU에서 유통된다

도, BGF 라테일과 협약 체결… 김관영 도지사, 농특산물 세일즈 활동 첫 성과 · 온라인 통해 유통 판로 확대 기대

2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BGF리테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건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북 농특산물 가공 식품의 판매처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 편의점인 CU와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와 CU편의점 윤영사인 (주)BGF리테일은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GF리테일은 현재 전국 1만 6,000여개 CU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간편식 개발과 원스톱 온라인 쇼핑서비스 '포켓CU' 앱 활성화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협약내용은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온라인 플랫폼(전북생생장터, '포켓CU앱)을 활용한 산지연계 유통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의 판매처 증가와 이를 활용한 간편식과 같은 가공식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도내 농민들과 (주)BGF리테일 양측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 시장은 지난 2013년 779억원에서 2021년 5,100억원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번 협약은 농가들에게 판로 확대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온·오프라인 시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GF리테일은 이미 지난 14일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 5종(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개발해 전국 CU 편의점에 출시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CU편의점의 'BGF리테일'과 농생명수도 '전라북도'가 손을 잡고 협력하게 돼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전국적 대기업이 전라북도 산지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도, 아이들 위한 안전선 '띠녹지' 조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 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녹지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띠녹지는 도로변 가로수 아래에 띠 형태의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도와 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해 무단횡단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올해 조성된 자녀안심 그린 숲은 익산 이리백제초에서 이리미한초, 완주 청완초에서 봉서초 구간 등 2개소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익산, 김제, 부안에 각 1개소씩 조성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 등 9개 학교 인근에 총 1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산림청에 신청한 상태다.

전라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2022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의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MBC 리포터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양육원 원장, 전북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카페 디스트 • 웅변코칭사 • 심리상담사
• 저서 "36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별, 별, 별"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마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 강 료 : 15만원 • 문 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마술지도사, 치매인지놀이협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시 공고 제2022-1826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안)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변경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체육시설	운동장	덕진구 장동 531-0 일원	647,112	-	647,112	전북고시 제2005-106호 (2005.7.29)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토지이용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물규모(㎡) 건축바닥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구 역	총 계		647,112	-	647,112	01,269	증15,009	96,278 (129,400㎡이하)	-	증151,927	151,927 (328,500㎡이하)	
① 운동시설	소 계		510,393	감161,035	349,303	80,413	증14,953	95,366 (114,400㎡이하)	-	증150,327	150,327 (286,500㎡이하)	5층이하
	월드컵경기장	1	328,270	감160,032	167,435	59,163	감6,497	52,666	-	증93,787	93,787	6층
	야구장	2	74,380	감24,304	50,004	3,302	증1,398	4,700	-	증7,900	7,900	3층
	육상경기장	3	-	증72,561	72,561	-	증7,700	7,700	-	증9,200	9,200	3층
	실내체육관	4	57,229	감36,041	21,188	11,000	-	11,000	-	증17,000	17,000	3층
	실내수영장	5	24,377	감4,214	20,163	6,620	증2,580	9,200	-	증11,000	11,000	3층
	테니스장	-	26,129	감26,129	-	320	감320	-	-	-	-	
	다목적체육관	6	-	증17,074	17,074	-	증10,100	10,100	-	증12,000	12,000	3층
② 기반시설	소 계		136,719	증161,035	297,004	356	증56	912 (15,000㎡이하)	-	증1,100	1,100 (60,000㎡이하)	5층이하
	생활체육공원1	7	53,835	감17,063	41,022	356	감100	456	-	증550	550	1층
	생활체육공원2	8	-	증30,362	30,362	-	증256	256	-	증300	300	1층
	광장	9	-	증21,262	21,262	-	증200	200	-	증250	250	1층
	주차장	10	41,909	증48,950	90,059	-	-	-	-	-	-	
	도로	-	35,925	증11,086	37,011	-	-	-	-	-	-	
	하천	11	-	증69,280	69,280	-	-	-	-	-	-	

3. 변경 사유서 :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신규시설 설치 및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타운 조성

4.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 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 실음생략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522)
2. 의견제출 방법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kyungtea@kore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종합경기장재생과 (063-281-5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

전 주 시 장